10.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을 논함

손님 폐단이 있는 법을 고쳐서 이 백성을 편안하게 한 다음에는 다시 무슨 일을 합니까?

주인 백성을 기른 다음에 교화(敎化)*를 할 수 있는데, 교화를 하는 방법은 학교보다 우선하는 하는 대상은 없습니다.

손님 조정(朝廷)의 학교 정책이 좋은 계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끝내 실효를 보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주인 멈춘 소리에서 메아리를 찾고, 숨은 형체에서 그림자를 찾는 어리석은 일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직 없었습니다. 지금 학교 정책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경에 내버려 두고서 좋은 계책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노력을 하였는데도 실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훈도(訓導)*를 지극히 천한 직책으로 생각하여, 반드시 가난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을 구해 그 자리를 주어 굶주림과 추위나 면하게 합니다.

훈도가 된 사람도 또한 다만 학생들을 침탈하여 자기만 살찌게 할 뿐이니, 가르쳐 깨우치게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래가지고서 인재가 양성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의 계책으로는 무엇보다도 8도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각 고을에 공문을 보내어, 매 3년마다 한 번 그 고을 사람 가운데 경사(經史)•에 능통하고 조금 방향을 알아, 남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뽑게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이름을 기록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여러 고을에서 선발된 명단을 모아서 이조(吏曹)•에 보내며, 이조에서는 그 명부를 살펴 널리 공론(公論)•을 종합한 뒤 다시 정밀하게 선택합니다. 훈도를 임명할 때에는 반드시 그 고을 사람을 임명하고 적당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웃 고을 사람을 임명하며, 거기에도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해당 도(道)의 사람을 임명합니다. 그 임기는 제한을 두지 말고 오직 가르침의 성과를 가지고 기약(期約)해야 합니다. 지방관이 나라의 명령을 받고 행차할 때에도 훈도를 예로써 대우하여, 향교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라면 훈도가 영접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지방관은 유생들을 시험하는 일 이외에

- 교화(敎化) : 가르쳐 착한 일로 인도하는 것.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계발하여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오늘날의 교육 목적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앞에 나옴.
- 훈도(訓導) : 조선시대 서울의 4학과 지방의 향교에서 교육을 담당한 정9 · 종9품의 교관.
- 연목구어(緣木求魚) :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빗댄 말로 『맹자』에 나옴.

는 공적 모임에 참석하지 않도록 합니다. 훈도로 하여금 몸가짐을 스스로 신중히 하고 배우는 사람들을 격려하도록 합니다. 그런 뒤에 매년 감사가 직접 가서 그 성적을 살펴보는데, 유생들만 시험하고 훈도는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유생들이 도학이 숭상할 만한 것인 줄 알며,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행동을 삼가며, 글을 읽어 이치를 연구하는 것을 요체로 삼는 데 힘쓴다면, 유생들을 가르친 훈도의 성적이 최상급입니다. 만일 유생들이 글을 읽는 데 게으르지 않고 행동에 잘못이 없으며, 비록 과거시험 위주의 습속을 벗어나지 못했더라도 출세하여 영달하는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훈도의 성적은 2등급입니다. 만일 유생들이 문장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글을 잘 지을 수 있다면 또 3등급입니다. 성적이 최상급인 훈도는 조정에 보고하여 상을 논해서, 6품의 직위를 주어 사림(士林)•을 권장합니다. 2등급인 훈도도 또한 공로를 보고하여 재물이나 벼슬로 포상함으로써 가르치는 데 힘쓰도록 합니다. 또 3등급인 훈도에 대해서는 감사가 깊이 권장하여 그로 하여금 진보에 힘쓰게 합니다. 이전과 같이 그럭저럭하여 살펴볼 만한 공적이 없는 훈도는 최하의 성적을 부여하고, 또 이전과 같이 탐욕을 부리고 학

- 감사(監司) : 조선시대 지방장관인 관찰사(觀察使).
- 경사(經史) : 유교경전과 역사.
- 이조(吏曹) : 조선의 중앙 행정조직인 6조 가운데 하나로 관리의 임명과 인사(人事) 등의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 공론(公論) : 여러 사람의 의견으로 일종의 여론.
- 사림(士林) : 선비사회 곧 유림(儒林)를 말함.

생들에게 가혹하게 거두어들이는 훈도는 법에 의해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훈도의 직책이 매우 중요해져서, 그 직책에 나아가기를 달갑게 여기지 않던 선비들도 또한 기꺼이 훈도를 맡으려고 할 것입니다.

손님 지금의 성균관은 남보다 먼저 선을 행하는 곳인데, 선비의 습속이 날로 구차해져서 학문은 알지 못하고 한갓 영화(榮華)와 이익만 사모하고 있으니,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 이것은 성균관 유생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조정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재를 뽑는 근거가 단지 문예(文藝)만 중요하게 여기고 덕의(德義)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누군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학문이 있고 세상에 뛰어난 행실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과거 시험을 통하여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는 조금도 그 도를 시행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또 성균관에서는 원점(圓點)•으로 선비들을 수업현장에 모으기 때문에 선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이 모두 이익을 구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이렇게 인도하고 있으니, 선비들의 습속을 무슨 방법으로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 원점(圓點) : 출석점수. 아침과 저녁 식사 때에 서명을 두 번해야 원점 1점을 얻고, 300점을 취득해야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오부(五部) : 서울을 동 · 서 · 남 · 북 · 중부로 나뉜 다섯 구역.
- 생원(生員) · 진사(進士) : 생원과 진사는 소과(小課)의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을 일컬었음.
- 유학(幼學) : 벼슬하지 않았던 유생(儒生) 또는 초학자를 일컫는 말. 대개는 소과

지금의 계책으로는 팔도와 서울의 오부(五部)•에서 생원(生員)·진사(進士)•와 그리고 다소 학문에 뜻을 두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유학(幼學)•을 해마다 한 번씩 뽑습니다. 그 선발의 기준을 너무 높게 할 필요는 없고, 다만 도학이 숭상할 만한 것인 줄 아는 사람이면 모두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적어 모두 이조와 예조에 넘기고, 이조와 예조는 한 곳에 모아 그 명단을 살피고 다시 의논을 더하여 생원(生員)·진사(進士) 가운데서 상사생(上舍生)• 2백 명을 선발하여 성균관에 있게 합니다. 그들을 다섯 반으로 나누어 한 반에 40명씩 되도록 하고, 시골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기일 안에 도착하도록 합니다. 또 유학(幼學) 2백 명을 뽑아서 4학(四學)•에 나누어 있게 하는데, 각 학교당 50명으로 하고 또한 다섯 반으로 나누어 한 반에 10명씩으로 합니다. 이들의 이름을 선사(選士)라고 합니다. 그런 뒤에 따로 유신(儒臣)• 가운데 학문이 이미 이루어지고 행실이 높은 사람을 택하여, 성균관 및 4학의 관원으로 삼아 학생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오직 바른 학문을 강의하여 밝히는 것을 힘쓰게 하는데, 그 학문은 반드시 인륜에 근본을 두고 사물의 이치를 밝히며, 선을 택

(小科 : 생원 · 진사과)의 응시자를 유학이라고도 부름.

- 상사생(上舍生) :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의 상사(上舍)에 거처하던 유생
- 4학(四學) : 서울의 동 · 서 · 남 · 중부에 설치한 관립 교육기관으로 지방의 향교 급인 학교.
- 유신(儒臣) : 유학에 조예가 깊은 신하.

하고 몸을 닦아 덕을 이루기를 기약하고, 다스리는 도리에 통달하여 국가를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것으로 뜻을 삼아야 합니다. 만약 학문과 행실이 모두 여기에 들어맞는 사람이 있으면 곧 조정에 오르게 하여 대간(臺諫)*이나 시종(侍從)*의 반열에 서게 합니다. 비록 여기에는 못 미치더라도 행실에 결점이 없고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은 또한 여러 실무자의 직책을 줍니다. 만약 도를 믿는 것이 독실하지 못하고 행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학적을 삭제하고 이조와 예조는 다시 다른 사람을 선택하여 빈자리가 나는 대로 보충합니다. 또 생활에 필요한 물자들을 지극히 넉넉하고 깨끗하게 제공해주어 조정이 현명한 사람을 대접하는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지방의 유학(幼學)으로 선발된 사람은 그 인원의 많고 적음에 따라 향교나 서원에 머물러 거처하게 하고, 적당하게 반을 나누어 관청에서 그 생활필수품을 지급하여 훈도에게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지방에서 선발된 선비 가운데 특히 학문과 행실이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고을에서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그 이름을 기록하여 이조와 예조에 넘깁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성균관의 일반 기숙

- 대간(臺諫) : 조선시대 간언(諫言)을 맡아보던 관리를 이르는 말. 곧 사헌부(司憲府) · 사간원(司諫院)의 벼슬을 통틀어 이르던 말.
- 시종(侍從) : 국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며 국사를 처리하던 신하의 총칭, 홍문관의 관원과 예문관의 검열(檢閱), 승정원의 주서(注書) 등을 통틀어 시종신이라 하였음.
- 승보시(陞補試) : 원래 4학에서만 실시하던 성균관의 상재생(上齋生)인 생원과 진사

사에 살게 하여 생원과 다름없이 대우하고, 그 실제적인 덕을 살펴서 승보시(陞補試)*를 치르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비 된 자는 모두 덕의(德義)가 높일 만하다는 것을 알 것이고, 한갓 문예만을 숭상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백성들도 흥기하고 사방에 이런 바람이 일 것입니다.

손님 생원 · 진사 · 유학으로서 선사(選士)*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그 학적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주인 생원과 진사는 성균관에 학적을 두고 유학은 4학(四學)에 학적을 두는 것은 모두 이전처럼 합니다. 다만 원점(圓點)*과 관비로 급식하지 말며, 석전(釋典)* 때와 임금이 학교를 시찰할 때와 상소를 올릴 때에만 모두 모여서 식당에 참석하게 합니다.

손님 지방의 학생 가운데는 글 한자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주인 고을의 유생은 모두 정원이 있으니, 정원 이내의 유생은 도태시켜 내보내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나이가 젊은 사람을 찾아서 보충하고 나이만 많고 재주가 없는 사람은 도태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원 이외의 가르칠 수 없는 유생은 모두 군인에 보충하는 것

로 올라가는 자격시험.

- 선사(選士) : 진사 · 생원 · 유학(幼學)으로 특별히 선발된 선비. 앞의 본문에 나옴.
- 원점(圓點) : 출석점수. 아침과 저녁 식사 때에 서명을 두 번해야 원점 1점을 얻고, 300점을 취득해야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앞에 나옴.
- 석전(釋典) : 문묘(文廟, 성균관과 향교에 있음)에서 매년 두 차례 지내는 제사.

이 좋을 것입니다.

손님 지방의 이른바 업유(業儒)•는 어느 곳에 배치해야 합니까?

주인 이 경우 가르칠 수 있는 자를 가려서 모두 향교로 보내고, 가르칠 수 없는 자는 도태시켜 모두 군인에 보충하는 것이 또한 좋을 것입니다.

손님 만약 세속에 얽매이기를 싫어하는 선비로서 적을 둔 데도 없고, 산속에 자취를 감추어 문을 닫고 뜻을 지키며 가난을 편안하게 여기고 도를 즐겨, 그 덕의(德義)의 명성이 가까운 곳이나 먼데까지 널리 퍼진 사람이 있다면 장차 어떻게 대우해야 합니까?

주인 그 같은 사람은 처사(處士)•로 불러 올려 그 허실(虛實)을 살펴봅니다. 그 명성을 헛되이 얻은 것이 아니라면 서열을 따지지 않는 지위로 대우하여 임금을 보좌하는 직책을 맡겨야할 것입니다.

손님 생원과 진사가 원점(圓點)을 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유학(幼學)•과 다른 점이 없습니까?

주인 그렇습니다.

손님 선사(選士)•와 보통 유생이 과거에 응시하는 규정에도 차이

- 업유(業儒) : 서자(庶子)로서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 손자나 증손 대에 와서야 겨우 유학(幼學)이라 일컫게 됨.
- 처사(處士) : 벼슬을 하지 않고 초야에서 은둔하며 학식과 덕을 닦은 선비들을 일컫는 말. 조선중기 대표적인 처사가 서경덕(徐敬德)과 조식(曺植)이다.
- 유학(幼學) : 벼슬하지 않았던 유생(儒生) 또는 초학자를 일컫는 말. 대개는 소과(小科:생원 · 진사과)의 응시자를 유학이라고도 부름. 앞에 나옴.
- 선사(選士) : 진사 · 생원 · 유학(幼學)으로 특별히 선발된 선비. 앞의 본문에 나옴.
- 식년시(式年試) :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된 과거시험. 정기시험.

가 없습니까?

주인 식년시(式年試)•나 인재를 널리 뽑는 별시(別試)•를 제외한 정시(庭試)•에는 선사(選士)만이 참여하고, 일반 유생은 참여할 수 없게 합니다. 식년시에는 생원과 진사로서 선사가 된 사람만이 관시(館試)•에 나아가고, 그 나머지 생원과 진사는 향시(鄕試)•와 한성시(漢城試)•에 나아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유생들이 더욱 선사의 귀중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손님 그대의 말은 참으로 좋아서 삼대(三代)에 인재를 취하는 방법에 거의 가깝다 하겠습니다. 다만 세상의 도리가 이미 땅에 떨어졌고 백성들의 거짓이 날로 늘어나, 선발할 때에 공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찌합니까?

주인 이것도 세속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로부터 입법(立法)은 본래 적절한 사람에 맞게 행하는 것이지만, 또한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입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이 이미 시행되어 풍속이 점차 바뀌고 선비가 염치(廉恥)•를 알게 되면, 사사로운 욕심을 따르는 폐단도 당연히 저절로 그칠 것입니다. 만약 사사로운 욕심을 따

- 별시(別試) :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특별히 인재가 필요할 때의 과거시험으로 부정기 시험.
- 정시(庭試) : 별시(別試) 가운데 하나로 경사가 있을 때 임금 앞에서 특별히 치르던 과거.
- 관시(館試) : 조선시대에 성균관에서 실시한 문과(文科)의 초시.
- 향시(鄕試) : 지방에서 실시하던 과거의 초시.
- 한성시(漢城試) : 한성부에서 실시한 식년 생원 · 진사 초시와 식년 문과 초시.
- 염치(廉恥) : 청렴결백하고 수치를 아는 것. 앞에 나옴.

르는 폐단이 염려된다고 해서 한갓 정해진 법규만 지키게 되면, 이익과 욕심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니, 그러하고서도 가르침을 밝혀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손님 세간에는 현명한 사람은 지극히 드물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매우 많습니다. 그대의 말을 만약 시행한다면 어찌 온 세상 사람들이 군자를 원수로 보지 않겠습니까?

주인 예로부터 정치를 잘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비방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자산(子產)•이 정(鄭)나라의 재상이 되었을 때 1년 동안은 비방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싶다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뒤에는 비방이 그치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가 죽을까봐 걱정했습니다. 또 공자가 노나라의 재상이 되었을 때, "버려도 죄가 안 된다."•는 노래가 비록 처음 정치할 때에 나왔으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사사로움이 없다."는 칭송이 교화가 행하여진 뒤에 유행하였습니다.• 오직 옛 도리를 굳게 지키고 변함없이 힘써 행하여 좌절하지 말고 성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민심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또 이 법을 시행할 적에 오직 잘못을 고치는 것만 허용하고 지난날의 잘못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 자산(子產) : 춘추말기 정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가로 자는 자산(子產), 자미(子美)이고, 호는 성자(成子)이다.
- 버려도… 안 된다 : 공자의 무능을 풍자한 노래. 『여씨춘추』에 보임.
- 자산…유행하였습니다 : 이 고사도 『여씨춘추』 「낙성(樂成)」에 등장함.
- 왕도(王道) : 임금이 어진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 왕도정치를 말함.
- 예악(禮樂) : 예법과 음악. 앞에 나옴.
- 교화(敎化) : 가르쳐 착한 일로 인도하는 것. 앞에 나옴.

군자는 완전히 달라지고 소인도 표면적이나마 고치게 되어 모두 인재를 만드는 데로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원망과 비방이 일어나더라도 어찌 그치지 않을 것을 염려하겠습니까?

손님 왕도(王道)•를 시행하는 것이 과연 이것으로 완벽합니까?

주인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모두 현시대를 구제하는 대책이지 완벽한 왕도가 아닙니다. 이 백성을 편히 살게 해 주었다면 예악(禮樂)•과 교화(敎化)•로 인도하는데, 그것은 점차로 시행하는 것이지 하루에 다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풍속을 아름답게 변하시키고, 산업을 만들어주는 것은 정전제(井田制)•의 취지에 맞게 하고, 사람을 쓰는 것은 주나라 관제에 맞게 하고, 신(神)을 섬기는 것은 삼대의 예법을 따르도록 한 뒤에라야 완벽한 왕도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토지소유의 제한이 없어 빈부차이가 매우 심하고, 백성들은 단속하지 않아 향약(鄕約)•이 무너졌습니다. 과거의 규정이 빈흥(賓興)•에 비교해 오히려 부끄럽고, 도교(道敎) 식의 제사를 드려 아직도 이단을 근절하지 못하였고, 종묘의 예법도 아직 옛 제도에 합치하지 못하고 있으니, 완벽한 왕도를 어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기회가 있을 때에 다시 말하겠습니다.

- 정전제(井田制) : 하 · 은 · 주 삼대에 걸쳐서 시행되었다는 토지제도로 우물 정(井)자 모양을 단위로 각각 8가구에 토지를 나누어 백성들에게 경작하도록 하고, 중앙의 구역은 공동경작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로 『맹자』가 그 시행을 주장하였다.
- 향약(鄕約) :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향촌의 자치 규약.
- 빈흥(賓興) : 주나라에서 시행했다는 일종의 주천제도.

해설

이 편에는 율곡이 당시 조선의 현실에 근거한 교육개혁을 논하였다.

조선시대의 교육제도는 초등교육에 해당하는 기초교육은 가정이나 서당에서 실시하는데, 이것은 오늘날로 보면 사립 교육에 해당한다. 중등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는 지방의 향교와 서울의 4학인데, 이는 국가에서 관리하였다. 이 과정을 수료하고 지방에서 치르는 향시(鄕試)나 서울에서 치르는 한성시(漢城試)에 합격하면 생원 또는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성균관은 오늘날로 치면 하나밖에 없는 국립대학이다. 성균관에서 소정의 공부를 마치면 대과(大科)를 치루고 합격하면 관리가 된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향교보다는 서원(書院)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많았는데, 서원은 사설교육기관이다.

어느 시대이건 교육의 본래 목적은 그 사회에서 바라는 바람직한 인간을 육성하는 데 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학교교육이 본래의 교육목적인 이런 바람직한 인간을 육성하기보다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에만 매달리게 된다. 학생의 인격함양과 소질계발보다는 오로지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학과공부, 그것도 모자라 학원까지 다니면서 오로지 시험만 대비한다. 율곡이 살았던 조선시대에도 덕성 함양보다는 과거준비를 위해 공부에 매진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율곡이 앞에서 말한 내용이 그 보완책이다. 기존 교육제

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제도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현실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기존 제도인 향교 · 4학 · 성균관을 유지한 채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하였다.

먼저 향교나 4학에서 가르치는 훈도(訓導),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교사를 채용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가르치는 교사에게 훌륭한 자질을 요구함과 동시에 적절한 대우를 함으로써 교육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통용되는 상식이다. 공자나 석가 그리고 예수가 모두 훌륭한 스승이었듯이 훌륭한 스승 없이 인재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 위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특히 훈도를 평가하는 것은 직접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 유생 곧 학생들의 태도를 보고 하는데, 이것을 오늘날에 적용시켜 학생들의 인품과 태도를 보고 그 교사를 평가하는 좋은 방책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아직도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실적만 가지고 교사를 평가하는 관례가 남아 있어, 성적 만능주의의 폐단이 사회를 망치고 있다.

또 성균관에 입학시킬 진사와 생원을 뽑거나 4학에 입학시킬 유학(幼學)을 뽑을 때는 선발 기준을 너무 높게 잡지 않고 도학을 숭상할 자질을 보고 뽑은 후, 바른 학문을 강의하여 밝히는 것을 힘쓰게 하는데, 그 학문은 반드시 인륜에 근본을 두고 사물의 이치를 밝히며, 선을 택하고 몸을 닦아 덕을 이루기를 기약하고, 다스리는 도리에 통달하여 국가를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것으로 뜻을 삼아야 한다고 한다. 이들은 선사(選士)라 부르며 유학의 기본 이념인

자기 몸을 닦아 남을 다스리는 수기치인(修己治人)에 충실한 사람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이 내용을 보면 오로지 과거시험만을 위해 공부하는 것에서 자신의 인격과 덕을 닦아 남을 다스리는 유학의 본령에 충실하게 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그래서 성균관의 출석점수를 체크하는 원점(圓點)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오로지 과거시험 응시자격만을 얻기 위해 출석하는 것은 교육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기관이 사실상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직을 위한 학원으로 전락되고 말았는데, 그것은 입시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의 인격이나 덕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실력이라는 미명으로 성적이나 특수한 기능만으로 선발하기 때문이다. 또 선발방식을 어떤 식으로 바꾸더라도 학원에서 또 가르쳐 준다. 교육현장에서 창의와 인성을 부르짖지만 정작 창의와 인성을 제대로 평가해 거기에 맞는 인재를 발굴하고 있는지가 미지수다. 그 어려운 시험을 통해 사법부나 행정부의 고급공무원을 선발하였고 실력 좋은 인재들이 대기업에 진출하였지만, 우리나라 청렴지수가 국제기준으로 볼 때 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인성이나 덕성보다는 성적 위주로만 선발했다는 그런 증거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율곡의 이런 주장은 어쩌면 우리 인류의 패러독스다. 인간은 덕성을 존중하는 이성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사욕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다만 그런 이기적 성향을 이성적 덕성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일이 교육이다. 그런데 교육이 도리어

이런 이기적 성향만이 더 잘 발휘되도록 날개를 달아주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 율곡이 우려했던 점도 바로 이것이고, 지향했던 점도 이렇게 교육을 통해 덕성과 지성이 잘 발달된 이성적 존재로 변화시키려고 한 일이다.

客: 朝廷於學校之政이 非不講究善策이나 而終不
객 조정어학교지정 비불강구선책 이종불

見效는 何歟오?
견효 하여

主人: 止聲而求響하고 潛形而覓影은 自古及今에
주인 지성이구향 잠형이멱영 자고급금

未之有也라. 今之學校之政은 付之無可奈何之域
미지유야 금지학교지정 부지무가내하지역

하고 不求善策하니라. 故未見其效耳요 非有功而無
불구선책 고미견기효이 비유공이무

效也니라.
효야

之: 어조사/政: 정책/非不: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善策: 좋은 계책/而: 어조사/終: 끝내/見效: 효과를 보다/何歟: 무엇 때문인가?/止: 멈추다/聲: 소리/求: 찾다/響: 메아리/潛形: 형체를 숨기다/覓影: 그림자를 찾다/自古及今: 옛날부터 지금까지/未: 아니다/付: 붙이다/無可奈何: 어찌 할 수 없음/域: 지경/耳: 단정하는 어조사/功: 노력

해석

손님 조정의 학교 정책이 좋은 계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끝내 실효를 보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주인 멈춘 소리에서 메아리를 찾고, 숨은 형체에서 그림자를 찾는 어리석은 일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직 없었습니다. 지금 학

교 정책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경에 내버려 두고서 좋은 계책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노력을 하였는데도 실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客: 今之泮宮은 首善之地이어늘 而士習日偸하여
객 금지반궁 수선지지 이사습일투

不知學問하고 徒慕榮利하니 亦何術而可救耶오?
부지학문 도모영리 역하술이가구야

主人: 此非儒生之過也라. 朝廷之導率이 未得其
주인 차비유생지과야 조정지도솔 미득기

道也라. 今之取人이 只以文藝爲重하고 不以德義
도야 금지취인 지이문예위중 불이덕의

爲貴하니라.
위귀

泮宮: 성균관과 문묘를 통틀어 일컫는 말/首善: 먼저 착하게 행동하는 것/之: 소유를 나타내는 어조사/而: 말을 잇는 어조사/士習: 선비들의 습속/日偸: 날마다 구차해짐/徒: 한갓/慕: 사모하다/榮利: 영달과 이익/術: 꾀, 책략/救: 구제하다, 고치다/耶: 의문의 어조사/此: 이것/儒生: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過: 허물, 잘못/導率: 인도하고 이끔/未得: 얻지 못함/道: 도리, 방법/取人: 인재를 골라 씀/以~爲~: ~를 ~로 삼다(여기다)/文藝: 글재주/重: 중시하다/德義: 덕과 의로움/貴: 귀하다

해석

손님 지금의 성균관은 남보다 먼저 선을 행하는 곳인데, 선비의 습속이 날로 구차해져서 학문은 알지 못하고 한갓 영화(榮華)와 이익만 사모하고 있으니,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 이것은 유생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조정에서 인도하는 것이 적절한 방도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재를 뽑는 것이 단지 문예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덕의(德義)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